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중함

이규원/KBS뉴스 앵커, KBS-R '새아침의 클래식' 진행

지난 봄의 일이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후 서너시쯤 뉴스 준비를 위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전화가 한통 걸려왔다. 벤처 기업을 하는 씨클후배였는데 자기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을 방송에서 소개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방송일을 하면서 간혹 있는 민원이어서 확답을 해줄 수는 없지만 '노력해보마' 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행히 후배 회사의 제품은 방송에서 채택되었다. 아이템이 좋아서 방송에 채택될 수 있었겠지만 나는 마치 내가 소개를 하지 않았더라면 방송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기분이 뿌듯했다. 나중에 만나 그 후배는 내게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보라고 권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주식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을 뿐더러 당장 투자하려해도 여윌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 후배의 제안을 웃으며 그냥 흘려듣고 말았다. 그런데 일 년 후, 그 회사의 주식은 장외에서 최고 백배 가량 그야말로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것이었다. "아, 대박터졌다"라는 말은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리라.

나는 한동안 공황 상태에 빠졌다. 난 왜 손에 쥐어주는 행운도 놓쳐버리고 말았을까, 조금만 관심있게 들었더라면 지금 나는... 그땐 한달을 일하고 월급 받는 나의 월급쟁이 삶이 왜 그렇게 초라하게만 여겨지던지... 그렇게 한동안 '주식'이니 '벤처'니 하는 생소한 단어들에 머릿속을 어지럽혔고, 술렁거리는 들뜬 욕망에 부대껴야 했다.

하지만 돈이 없다고 인생이 초라한 것일까.

그건 아니었다. 만일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하는 일이 없다면 그 인생이 더 초라한 게 아닐까.

열심히 팜플러가며 번 돈이 더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무슨 득도나 한

것처럼 스쳐지나가면서 새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이 느껴졌다. 하루아침 벼락 부자가 된 사람들이 내 자리를 대신할 수 없으며 또 나만큼 이 일을 잘해내지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나를 많이 달래주고 위로해 주었다.

헛헛한 마음을 수습하고 미감(迷惑)에서 벗어나 느라 애를 먹어야 했지만 나는 다시 내 자리를 행복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오늘의 내가 있게 해준 나의 일, 내가 진행하는 뉴스와 내가 나레이션 을 넣은 문화 프로그램, 또 내가 소개하는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 난 요즘 어린 후배들처럼 화려한 조명을 받는 잘나가는 인기인도, 유명인도 아니지만 묵묵히 15년 가까이 내 영역을 흔들림없이 지켜 온 방송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휴일, 내 일터가 있는 이곳 여의도 공원에는 모처럼 화창한 휴일을 맞아 벚꽃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댄다. 내가 당직을 하는 날은 휴일임에도 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어야 한다.

내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휴일 저녁을 아늑하게 보내고 싶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내가 있어야 하는 곳에 있기에 난 즐겁다.

한때 '대박'의 유혹 때문에 내부의 소란을 겪고 번민하던 나를 반성하며 소중한 나의 일을 만난다.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졸졸이 늘어선 일 때문에 때로는 심신이 힘든 적도 있지만 내가 성실한 직업인이라는 것을, 또 내 목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나는 일상에 축적된 자잘한 기쁨이며 일로 인한 피곤까지도 기억하고 싶다. 그리고 신이 나를 방송인으로서, 아나운서로서 내신 뜻을 합당하게 남김 없이 쓰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